



전주시가 지난 2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위원, 전주 시민 50여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 조선시대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엿보다

전주시, 전통문화전당서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연구 세미나 개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시가 전주한 정식의 기원인 조선시대 전라감찰사들의 식탁과 맛을 재현했다.

전주시는 지난 23일 한국전통문화전당 4층 교육실에서 송영애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 교수,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원, 정명수 전북대학교 명예총장, 김미숙 한식진흥원 팀장, 김영 농촌진흥청 연구관, 박정민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주 시민 50여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송영애 전주대학교 식품산업연구소 교수는 '전라감영의 관찰사 밥상과 외국인 접대상'을 주제로 △오늘날 전주음식의 시원(始原)을 전라감영에서 찾기 위한 전라감영 음식문화에 대한 연구결과 △사례 및 문헌연구를 통한 전라감영 관찰사 밥상 개발 결과 △135년 전에 전라감영을 방문한 외국인 손님에게 차려낸 상차림 재현 및 분석 등에 대해 발표했다.

송영애 교수는 "감영은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드나들던 공적공간으로 감영의 주방에서

는 감사의 진지상, 손님 접대상 등 이들이 먹어야 하는 음식을 만드는 일을 담당했다는 데서 감영의 음식문화는 전주음식의 시원"이라며 "감사는 국가적 축하나 의례행사가 끝나면 진지상을 아랫사람들에게 물려주었고 상물림이 끝나고 남은 음식은 기름종이에 싸서 백성들이 풀고루 나누어 가지고 갔으며 이러한 감사의 밥상 물림과 싸가지고 간 음식 등이 공간적, 시간적 음식문화유산으로 계승되어 오늘날 전주한정식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송 교수는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성호사설 △완산지 △전라감사를 지낸 유희춘의 '미암일기' △서유구의 '완영일록' 등 고문헌을 바탕으로 전라감영의 관찰사 밥상을 재현해 소개했다. 최종 음식선정 기준은 가치성, 지역성, 현실성 등을 고려해 조선시대에 왕권을 대행하는 지역 최고통치자인 전라감영의 관찰사 밥상을 9첩으로 제시했으며, 감영이 위치한 전주의 식재료와 조리법을 고려했다.

그 결과, 관찰사 밥상에 오른 기본 음식은 △쌀밥 △고깃국 △김치(강수저, 배추김치, 물

김치) △장류(간장, 초간장, 초고추장) △찌꺼(생선조치, 조기찌꺼) △닭찜 △쇠고기 전골 등이 선정됐다. 또, 반찬은 △무생채 △미나리 나물 △송어구이 △생치조림 △양하적 △죽순해 △쇠고기자반 △새우젓 △어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조선 후기인 1884년 11월 10일에 전라감영을 방문한 외국인(조지 클레이턴 포크, George Clayton Foulk, 1856~1893)이 여행일기 속에 소개한 아침밥상도 소개됐다.

이외에도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원을 좌장으로 정명수 전북대학교 명예총장과 김미숙 한식진흥원 팀장, 김영 농촌진흥청 연구관, 박정민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도 펼쳐졌다.

시는 이번 전라감영 관찰사 음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 전주비빔밥축제에서 관찰사 밥상과 외국인 접대 밥상을 재현해 기획 전시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이번 연구결과와 세미나는 전라감영의 식문화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나이가 전주시민들에게 전주음식문화에 대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기자

## 익산시,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행사 참여자 사전 접수

익산시는 오는 9월 12일 백제왕궁 일원에서 열리는 백제왕궁 한가위 소원등 날리기 행사 참여자를 사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를 활용한 야간체험 프로그램으로 마음속에 담아둔 소원을 담아 날리는 행사로 △소원등 쓰기 △사전공연 △기념식 △달놀이 △소원등 점화 및 날리기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인들에게 문화재 가치를 재조명하고 가족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행사는 한가위에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이 명절 준비를 마치고 한가해진 시간에 백제왕궁에서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고 현재의 소원을 빌며 밝은 미래를 상상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여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사에 사용될 소원등은 방염 처리된 국내산 소원등으로 낙화된 소원등은 인근 주민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며, 화재예방을 위해 익산소방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전 신청은 문자(010-9042-0288)를 통해 접수하면 되며, 3인 이상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고 3인 이하의 가족은 다른 가족과 같이 참여하면 된다.

/익산=정인천 기자

## “수준 높은 지역문화 발전 위해”

진안문화원, 제8대 원장 우덕희씨 선출



진안문화원 제8대 원장에 우덕희 이사(62)가 선출됐다.

진안문화원은 최근 문화의집에서 회원 1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우덕희 현 이사를 원장으로 선출하고 12명의 신입 이사로도 각각 선출했다.

이날 경선 없이 우덕희 후보를 회원들 만장일치로 추대된 신입 원장과 이사는 오는 9월 24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날 선출된 이사진은 다음과 같다.

부원장 이상훈(마령면), 이사 이상화(진안읍), 김경식(진안읍), 성진명(진안읍), 유준구(진안읍), 박영춘(부귀면), 심태형(안천면), 고준식(진안읍), 김동철(진안읍), 반주홍(정천면), 양수현(문화체육과

장) 등 12명이다.

우덕희 신입 원장은 현재 장수 천천중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달 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진안읍 출신인 그는 전주해성고등학교, 전주대학교 경영학과,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남 여수상업고에서 교편을 잡기 시작하여 진안제일고, 전주제일고, 김제 자영고, 동향중, 마령중, 장수중 등을 거쳐 33년을 교단에 몸 담았다. 2011년부터 진안문화원 이사와 2017년부터 진안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우덕희 신입 원장은 "진안문화원은 전임 원장님들과 회원들이 합심하여, 수준 높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천년고도 부안서 함께하는 '유천아 청자랑 놀자'

오는 30일 청자박물관서 음악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에서는 천년고도 부안군 유천리에 위치한 부안청자박물관에서 고려상감청자를 생산 제작했던 고려시대 관요라는 명칭에 맞게 오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제4회 오케스트라 협연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 주제 '유천아 청자랑 놀자'는 상징성 있는 유천리 지명을 의인화하여 부안청자 유적지구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앞장서 알리고,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10만여명 이상의 가족단위 관람객과 2023 부안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개회를 위한 문화공연으로 매년 개최하는 부안청자박물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주행사 내용으로 8월 30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박물관 야외광장에서 35인조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웅장함을 선보이며, 8월 31일 토요일과 9월 1일 일요일에는 오후 3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박물관 실내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협연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익숙한 영화음악, 팝, 클래식, 가요 등으로 공연을 하게된다.

또한 부안청자박물관은 2011년 4월에 개관하여 전시실 총 6실과 부대시설 총 3개를 갖춰 부안군이 직접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제1종 전문박물관이다.

전시동 1층은 고려청자 제작과정을 볼 수 있는 제작실, 놀이와 체험을 통해 청자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실, 국내·외 박물관과 교류전 등 각종 특별전시를

위한 기획전시실, 부안청자 이야기를 4D 애니메이션으로 상영하는 특수영상실로 구성되어 있다.

전시동 2층은 진품의 고려청자가 전시되어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명품실, 청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실로 갖춰져 있다. 체험동 2층 도예체험실에서는 1일 4회에 걸쳐 체험객 누구나 만들어볼 수 있는 도자기 제작방법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체험객이 만든 작품을 소중히 다뤄 1,300도 내외에서 도자기로 완성하는 가마소성실이 1층에 있다.

아외사적공원은 천년전 고려청자를 구워냈던 가마터를 1998년 발굴 조사하여 출토된 가마와 유물을 현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2기의 가마보호각이 있다.

또한 부안군에서는 유구한 천년 유적지와 유물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부안청자체 개발 상품 청자여의두문인반상기, 청자기와수저 받침, 청자상감국화문잔을 전주한옥마을 판매관에 입점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민간 도예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도예창작스튜디오를 갖추고 있다.

최연곤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제4회 부안청자박물관 음악회는 천년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살아 숨쉬는 고려시대 정성기 상감청자를 국내·외 관람객께 선보이고자 마련한 문화공연 뿐만 아니라, 박물관 입구에 설치된 '스톰리형 채널문자 포토존'에서 보여지는 고려상감청자를 제작한 고려청자 유적지구 등 지역주민께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